

기독교교육학 저서의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 연구: 파머, 해리스, 무어를 중심으로

김은주(상하이한인연합교회/전도사)

wuju1014@hanmail.net

한글 초록

이 논문은 기독교교육학 저서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가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됨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은 기독교교육학 이론연구의 배경이자 토대가 된다. 학자의 정체성은 객관주의적이고 인지주의적인 한계를 지닌 논증적인 글보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일인칭 시점의 자전적 글쓰기에 더 잘 드러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연구는 자전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징, 자전적 글쓰기와 자아정체성, 자전적 글쓰기와 기독교교육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저서 속에서 자전적인 글쓰기가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마리아 해리스의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 파커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엘리자베스 무어의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는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이 학습자의 정체성과 어떻게 만나고, 변형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를 통해 자전적 글쓰기가 이야기의 형식을 띠지만 이야기와 구별되는 이야기로서 저자와 독자의 정체성이 만나는 장이 되고,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변형을 일으키는 정체성 씨름의 장이 되며,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정체성 확장의 자리가 됨을 확인하였다. 자전적 글쓰기는 저자가 일인칭시점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이런 특징은 자아정체성 형성과 변형에 중점을 두는 기독교교육학의 목표와도 연결된다. 해리스, 파머, 무어의 글 속에 나타난 자전

적 글쓰기는 학자들의 신학적 입장과 교육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전적 글쓰기는 그간의 기독교교육학저서 글쓰기가 논증적이고 객관적인 글쓰기에 치중하여 독자에게 괴리감과 단절감을 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저자의 내면 이야기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로 초정할 수 있다. 자전적 글쓰기가 포함된 기독교교육학저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주제어 》

주제어: 자전적 글쓰기, 자아정체성, 이야기, 형성, 변형

I. 들어가는 말

파머(Palmer, 1998, 17)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르친다.”라는 문장으로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켰다. 가르침에는 교사의 내면이 녹아있다. 글을 쓰는 일 또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글 속에는 저자의 정체성에 관련된 모든 것 이를테면, 삶의 배경, 태도, 세계관, 등이 나타난다. 트레이시(Tracy, 1981, 104)가 “모든 해석학적 이해는 진정한 유한성과 철저한 역사성의 토대 위에 있다.”고 한 것처럼 어떤 저자라도 특수하게 처한 철저한 역사성이라는 땅을 딛고 서 있으며 그것에 터하여 글을 쓴다. 이처럼 글과 가르침, 저자와 교사는 불가피하게 자아의 정체성을 주제로 삼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아를 가르치는” 기독교교육학자의 글에 나타난 저자의 정체성은 기독교교육학 연구의 배경이자 토대가 된다. 저자가 언제 어디에서 나고 자랐는지, 어느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떤 하나님 경험이 있는지, 어떤 신학적 배경과 교육적 배경에서 공부했는가가 글에 담겨 있다. 저자의 삶이 기독교교육학의 이론을 전개하는 논픽션 글쓰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논픽션 글쓰기 즉 학문적 글쓰기가 가진 한계가 있다. 가장 큰 한계는 객관주의적 글쓰기의 함정이다. 그런 글쓰기의 특성은 나를 감추고 제 3의 인물들을 드러내는 공적인 글쓰기이다. 제 3의 인물들의 목소리를 의지해야 나는 비로소 나의 목소리를 소유할 수 있다. 그 인물들이 여타 다른 학문적 글쓰기에서 자주 인용된 목소리일수록 내 목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릴 수 있다. 개인적인 감정도 특수한 상황도 배제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글쓰기일수록 타당성을 얻게 된다. 파머(1998, 115)가 객관주의로 물든 교육현장이 교사들과 학생들을 단절시킨다고 지적했듯이 객관주의적 글쓰기는 저자와 독자 간의 상호연결성을 가로막고 분리시킨다. 주제와 소원한 주제가 쓴 글은 독자들도 멀찌감치 서 있게 만든다. 이러한 학문적인 글쓰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지는 모르지만 주제, 저자, 독자 모두를 진정한 앎 속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저자의 정체성이 객관적인 글쓰기만으로 온전히 표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객관주의적 글쓰기의 치명적 한계는 기독교교육학의 중심주제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진리란 직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기에 분석될 수도, 학습된 뒤 적용될 수도 없다(Anderson, 1963).”고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신자 개인의 경험적인 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객관주의적 글쓰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

또 다른 한계는 논픽션 글쓰기의 인지주의적 한계이다. 객관적 글쓰기는 논리적인 인지에 치중한다. 기독교교육학은 논리적인 정보를 투입해서 하나님을 즉각 알게 하는 결과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직관, 상상, 감정, 감각적인 인지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변형해가는 과정적인 학문이다. 부르너(Bruner, 1985)가 제안하듯 “진리를 말할 때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적(paradigmatic) 양식과 삶의 유사성으로 설득하는 이야기 양식” 즉, 두 유형의 인지가 모두 요구된다. 기독교교육학 저자

는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글에 녹여낼 수 있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다. 과학적이며 설명적인 언어만으로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의 저서들 속에서 저자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전적 글쓰기를 발견하여 저자가 어떻게 독자의 정체성을 초청하여 함께 씨름하고 새로운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으로 더불어 변형되어 가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자전적 글쓰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자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미래를 창조해가는 열려 있는 글이요 살아가는 글이다. 어떤 글쓰기보다 저자의 변형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정체성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삶의 유사성으로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여 진리를 만나는 일을 꾀할 수 있다. 객관주의로 점철된 기독교교육저서를 대할 때 거절감과 괴리감을 느끼지만 삶의 유사성을 가진 자전적 글쓰기의 저서는 저자와 독자의 정체성을 연결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한나의 기도문, 다윗 시편의 기도문, 마리아의 찬가, 공관복음서,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와 같은 성경에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본회퍼의 『본회퍼의 선데이』와 같은 신학자들의 저서 속에서도 자전적 글쓰기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자전적 글쓰기가 가진 주관적 상대주의를 낭만적으로 바라보아선 안 된다. 자전적 글쓰기가 가진 위험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객관주의로 치중된 기독교교육학의 글쓰기가 자전적 글쓰기의 보완으로 좀 더 온전해지기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그런 작업을 위해 본고는 우선, 자전적 글쓰기의 개념을 자아정체성과 연결하여 연구하고, 자전적 글쓰기와 기독교교육의 관계성을 살핀 후 마리아 해리스, 파커 파머, 엘리자베스 무어의 기독교교육학 저서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가 학자 자신과 독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II. 자전적 글쓰기, 자아 정체성, 기독교교육의 관계성 연구

자전적 글쓰기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가 중시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와 평범한 이야기를 차별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힘입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저서 출간, 다양한 분야의 강좌,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는 다양한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되고 대중과 소통한다. 자전적 글쓰기의 열풍을 반영한 학술 연구도 상담심리학, 교육학, 미학, 정치학, 사회 문화이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은 관심하는 바에 따라 자전적 글쓰기를 표현적인 글쓰기, 자서전적 자기 서사 쓰기, 자기 성찰적 글쓰기 등으로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전적 글쓰기가 학문의 여타 영역에서 다양한 초점에 맞추어 연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타인과 소통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준다. 이처럼 자전적 글쓰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차원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과 소통하여 서로의 정체성이 만나고 서로를 변형시켜주는 장(場)이 되고 있다. 자전적 글쓰기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자.

1. 자전적 글쓰기의 개념

자전적 글쓰기는 아직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자전적 글쓰기의 개념은 자서전의 이해에서 출발할 수 있다. 자서전(biography)은 “나 자신(auto=self)의 삶에 대해(bio=life) 쓴다(graphie=writing).”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다(김혜숙, 2009). 『자서전의 규약』을 저술한 르쥘렌(Lejeune, 1974, 3-11)은 자서전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내놓았다. 우선 18세기 이후 서구에서 발전한 자전적 글쓰기가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접근이, 자서전적 행위가 기억, 인격형성, 자기 분석 등의 여

타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심리학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하나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문학적으로 자서전은 “실제의 인물이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삼아 개인적인 삶과 일상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과거 회상형의 산문 이야기”이다. 르죈은 자서전을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몇 가지 규약을 정하면서 저자, 화자, 인물이 책의 서명과 일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르죈이 자서전 장르를 규명하였다면, 최근 최현섭과 박태호와 이정숙은 자서전의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최현섭·박태호·이정숙, 2000, 5-20). 그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경험에서 얻은 생각을 정리하고 그 글을 통해 자기는 물론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모두 자서전에 포함시킨다. 일기, 편지, 단편 에피소드 뿐 아니라 시나 소설, 사진과 그림과 같은 일체의 텍스트를 포괄한다.

본 고에서는 저자의 동일성이라는 르죈의 자서전 개념과 최근의 확대된 형식의 자서전적 이해를 채택하고자 한다. 자전적 글쓰기는 실제의 인물이 자신의 삶을 글의 재료로 삼아 기록한 산문 이야기이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현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기 삶의 과거 경험을 성찰하고 미래를 해석해나가는 모든 형식을 포괄한다. 더불어 최근의 자전적 글쓰기 개념은 저서 출간, 강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공적인 글로 안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전적 글쓰기가 자기고백적인 자아 이야기에 국한된 서사가 아닌 타인들에게 읽히고 소통과 공감을 얻어내어 우리의 이야기로 변형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전적 글쓰기는 자아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2. 자전적 글쓰기와 자아정체성의 관계

자전적 글쓰기는 이야기와 형식이 같다. 자전적 글쓰기는 글을 쓰는 저자의 정체성과 글을 읽는 독자의 정체성과 관계한다. 이야기, 자전적 글쓰

기,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1) 이야기지만 이야기와 구별되는 자전적 글쓰기: 정체성 만남의 장

인간은 삶의 경험을 구상할 때 이야기로 구성하고, 이야기로 기억하고, 이야기로 표현한다(양금희, 2010a, 33-34). 동시에 인간은 삶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이다(Show, 1999, 53). 이렇게 우리가 인간 존재양식인 이야기를 읽을 때 논리적 사고와 달리 상상적이고 직관적이며 구체적인 인식작용을 동원하여 논리로 알지 못하는 초월적 영역을 넘보기도 하고 감정을 이입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양식이요, 인식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구성하며, 살아내기 위해 이야기한다. 자전적 글쓰기는 이야기처럼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줄거리가 있고, 재미, 감동, 치유, 해방, 변화에로의 결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자전적 글쓰기는 이야기의 형식과 내용을 취하지만 이야기와 구별된다. 무엇보다 줄거리에 있어서 구별된다. 줄거리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갈등을 통해 결론으로 나아가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이다(Fackre, 1984, 5-6). 줄거리의 구성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이야기가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는 반면 자전적 이야기의 인물은 일인칭 시점인 “나”로 서술된다.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동일한 셈이다. 르죈의 자서전 규약대로 저자, 화자, 인물이 책의 서명과 일치하는 것이다(Lejeune, 1974, 25-40). 사건과 배경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한다. 자전적 글쓰기의 저자는 일종의 의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회상한다. 회상(recollection)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물리적 시간 순서에 따라 떠올리는 연대기적으로 기억(remembering)하는 것과는 구별된다(Crites, 1971). 회상은 마음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 기억들 가운데서 기억의 부분들을 꺼내어 새롭게 배열하는 의미 생성의 작업이다.

저자는 회상을 통해 시간성 위에 존재하는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내어 일종의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도록 한다(Crites, 1971). 이때 저자는 단순히 개인이 경험했던 사건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가지는 해석된 역사를 쓰는 것이다(양금희, 2010b). 저자는 현재에 서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저자는 과거의 사건 중 현재에 유의미한 것을 회상하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찰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거쳐 글로 옮긴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적 글쓰기가 삶의 사실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라기보다 저자가 선택적으로 회상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완전한 허구에 바탕을 둔 이야기와는 구별되기에 독자는 자전적 글쓰기에서 상대적으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와 구별되는 자전적 글쓰기가 정체성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저자의 입장에서 저자는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 현재에 유의미한 것을 회상하여 재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만나게 된다.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이 대면하는 순간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를 현재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미래의 나로 나아가게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독자는 저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경험한 과거 사건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며 신뢰와 공감을 가지게 된다. 독자의 정체성은 저자의 정체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에 흥미를 가지고 감동을 받아 치유와 해방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전적 글쓰기는 실제의 이야기이기에 저자 자신의 정체성을 대면하기에도, 독자가 신뢰와 공감을 가지고 만나기에도 적합한 장이 될 수 있다.

2)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변형시키는 자전적 글쓰기: 정체성 씨름의 장

자전적 글쓰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기 시작하여 반성과 성찰을 거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한다. 즉 자전적 글쓰기는 정체성과 씨름하는 자아정체성 형

성과 변형의 장이 될 수 있다.

자전적 글쓰기에서 말하는 자아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스트로프(Stroup, 1997, 102)는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고유한 성품으로서 기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이라는 정체성의 정의는 마치 정체성이 무시간적으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체성은 개인이 자기의식 속에서 의식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며 성찰적 활동을 통해 그것을 역동적으로 재창조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Giddens, 2010, 5-17). 자아 정체성은 스트로프가 말하는 지속적인 의식의 고유한 성품으로 유지되기 위해 기든스가 말하는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든스(2010, 17)는 이런 성찰적 사고활동을 가리켜 “자서전적 사고”라고 부르며, 자서전적 쓰기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데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미래로 열어젖힐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된다고 했다. 자기 성찰적 글쓰기가 자아정체성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재창조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처럼 자아정체성은 모든 인간이 삶을 지속할 때 저절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형성되는, 삶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이다. 일생토록 형성되며 변형되어 가는 과정인 자아정체성은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자전적 글쓰기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형시키게 하는데 용이한 점은 자전적 글쓰기가 저자의 과거 경험 즉 사건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자전적 글쓰기는 자기 자신과 과거의 사건을 객관화시키며 새롭게 보는 것을 허락한다.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마치 저자가 삶의 이야기를 마주 대하는 것은 예술 작품 앞에 선 감상자처럼 찬찬히 들여다보게 한다. 과거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느끼던 주체 의식이 현재는 감상자의 의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마치 그림 속의 한 인물로 등장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의 전체 구도나 색상 등이 그림 밖 감상자의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어떤 경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과 씨름하느라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던 것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벗어나 있을 때에 비로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거리두기는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 개입하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까지도 볼 수 있게 한다(임경순, 2001, 17-29). 이처럼, 자전적 글쓰기는 현재의 내가 감상자가 되어 과거의 나의 경험들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말 걸어오며 일종의 진리의 탈은폐를 경험하게 된다. 마치 트레이시(1981, 106)가 진정한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놀람, 해방, 대결, 충격, 존경하는 경외감, 변형으로 움직이는 변증법”으로 왕복 운동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과거의 나의 경험이라는 진정성 있는 예술 작품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경험에 놀라고, 싸우고, 충격 받고, 두려워 떨며 점차 변형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경험이 거리두기를 한 지금의 내가 다시 들여다볼 때 복합적인 감정이나 인식들과 또 다른 씨름으로 해석하고 변형되어 가는 것이다. 자전적 글쓰기의 거리두기 및 객관화과정은 이와 같이 과거의 정체성을 낫설게 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놀라고, 씨름하고, 대결하여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형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과거의 나를 마치 예술 작품 앞에선 감상자처럼 다시 경험하게 하고 충격과 대결 가운데서 점차 과거의 나보다 변형된 자아로 발전해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전적 글쓰기는 성찰과 자기반성의 과정으로서 자아정체성의 치열한 씨름의 장이 된다.

3) 나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자전적 글쓰기: 정체성

확장의 장

자전적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의 우선적 근거는 자전적 이야기에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이 나와 세계와 타인이 관계하는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리쾨르(Ricoeur, 2004, 175-185)는 정체성을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로 구분하며 자아정체성은 이 둘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일어난다고 했다. 특히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타자성을 동시에 가지는데, 그 이유는 자아는 항상 타자와 세계와 결부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자전적 이야기에서 회상되는 과거의 경험은 나와 관계 맺었던 과거의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그런 자전적 이야기는 결국 나의 정체성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한 사람들로 확장된 이야기이다. 나, 타자, 세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자아정체성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 공존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로 변형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자전적 글쓰기가 사회문화적이고 맥락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글쓰기는 개인의 인지적인 활동이 아니고 의미 구성의 사회적 측면과 맥락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이 등장했다(유승현, 2010, 17-20). 이는 주체가 하나의 통일된 자아로 존재하기보다 주체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다양한 언어유희를 통해 그물망처럼 분산되어 존재한다는 포스트모던적 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원석, 2017). 즉, 글쓰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있고 자신이 속한 담화공동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담화공동체란 언어적 관습과 규범이 같은 공동체이다. 사람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 속하기에 언어가 가진 사회성과 언어적 관습, 속담, 은유, 상징체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크라이츠(Crites, 1971)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말하고 듣고 보는 다양한 이야기, 드라마, 그리고 거룩한 이야기 등을 통해서 경험의 가장 깊숙한 무의식 속에 내면적 이야기를 형성한다.”고 했다. 여기서 내면적 이야기는 문화가 제공하는 상징체계에 의해서 조정되고 중재된다는 의미로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이다.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과 크라이츠의 내면적 이야기를

통해 글쓰기란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고도의 인지적인 사고능력을 통해 써 내려 가는 형식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맥락적이며 공동체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처럼 글쓰기는 나와 세계와 타인이 관계하는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기에 사회문화적이고 맥락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아 정체성들이 만나고 씨름하는 장이 되는 자전적 글쓰기는 비단 저자의 개인적 이야기가 아닌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를 형성해나가는 무수한 정체성들이 확장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정체성들이 만나고 씨름하며 확장해나가는 자전적 글쓰기는 기독교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3. 자전적 글쓰기와 기독교교육의 관계

최근 기독교교육학에서 자전적 글쓰기 영역을 직접적으로 다룬 다양한 연구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 중에서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김혜숙, 2009)”과 “쿠레레(Currere)방법을 적용한 청소년 자전적 쓰기 수업 연구(권오상, 2015)”가 눈에 띈다. 두 연구는 교육이 목표와 산출이라는 결과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여행과 순례와 같이 과정 지향적이라는 재개념주의 교육과정이론에 터하여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과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변형에 이르게 함을 논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기독교교육학을 결과 지향적이 아닌 과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본 고와 같은 맥락이다. 이 장에서는 자전적 글쓰기가 기독교교육학이 목적으로 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만남, 변형, 확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성경과 신학적 저서의 예를 통해 확인해볼 것이다.

먼저, 자전적 글쓰기는 이야기의 형식이기에 재미와 감동을 통해 독자의 정체성을 만나는 장이 되게 한다. 자전적 글쓰기가 이야기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는바 이야기가 가진 인간학적 차원, 인식론적 차원, 신앙적 차원을 통해 기독교 교육함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양금희, 2010b).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와 떼어 수 없고 삶의 과정이 이야기적이며 신앙의 형성과정은 이야기의 형성과정이다. 특히 신앙형성 과정에서 마스터 스토리인 성경이야기에 따라 삶의 이야기를 형성해가며 신앙의 여정을 하는 동안 삶의 이야기를 변형시켜간다. 이야기가 신앙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안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녀들은 출애굽이라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신앙정체성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전적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에 바탕을 둬으로써, 쓰는 과정 가운데 저자는 과거의 자아정체성을 대면하고 독자는 진정성 및 신뢰와 공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된다. 저자의 일인칭으로 서술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확대된 형식의 자서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약의 공관복음서는 자서전적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의 증언이 이야기가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적 과거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인칭 시점의 시로 서술한 다윗의 시편들도 자전적 글쓰기에 포함된다. 시편 3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고백의 기도에서 다윗은 일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쫓는 대적이 많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다. 또한 누가가 대신 서술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란 말씀은 자전적인 바울의 고백으로서 과거의 정체성이 변형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이다. 없었던 이야기이거나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회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체험한 하나님 만남의 이야기인 것이다. 공관복음서의 저자들, 다윗과 바울의 고백은 삶의 경험 안으로 하나님이 개

입하신 사건을 진정성 있게 서술함으로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동일시와 공감을 불러일으켜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 독자들은 다윗을 실제로 도우신 하나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거꾸러트리시고 바울로 세우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 저자의 일인칭 고백적 이야기를 학습자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은 그룸(Groome, 1980)의 공유된 실천 모델과 유사하다. 학습자들의 이야기와 기독교공동체 간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룸의 방법은 자전적 이야기를 쓰거나 읽음으로서도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자전적 이야기는 기독교교육학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변형시키는 씨름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자아정체성은 살아가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다. 이때, 과거의 경험은 키에르케고르가 제안한 간접적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Little, 1983, 125). 그는 진리를 대면하는 방식으로 신화, 비유, 시와 같은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간접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으라고 제안했는데, 자전적 글쓰기의 소재가 되는 과거의 경험은 일종의 예술작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자는 과거의 사건을 예술작품으로 대하며 거리두기를 통해 객관적인 거리에서 자아를 두고 관찰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다. 특히 회심체험과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과거의 회심 체험을 되 돌아보며 기독교인으로서의 현재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결단을 일생토록 하게 된다. 기독교교육학자 또한 기독교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자전적 삶을 회상함으로써 기독교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변형시킨다. 기독교교육학자의 자아정체성의 성찰은 신학적 성찰이요 학문적 성찰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전적 이야기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

나우웬(Nouwen, 1992, 16-17)은 여러 저서에서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임을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성찰을 표현하고 있다. 나우웬(1992, 29)은 『탕자의 귀향』의 프롤로그를 “어느 날 나는 토론토에 있는 라르쉬 ‘데이 브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자전적 글쓰기로 시작한다. 20여 년 간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그가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 브레이크에 첫 발을 디딘 후, “탕자의 귀향”이라는 포스터를 벽에 걸면서 자신의 영적인 여정과 정체성을 그림 속에서 찾아내게 된다. 성경이야기를 표현한 예술작품을 통해 과거의 영적인 경험들을 반추하며 씨름해나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독교 영성가로서 가르치고 책을 저술해 온 나우웬은 공동체로 온 첫날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독자들은 프롤로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접할 때 나우웬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기독교영성가로서의 정체성을 반성하고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나우웬의 고백적 이야기와 고통스러운 신학적인 통찰이 독자로 하여금 그의 과거로 함께 들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 속으로 동참하게 한다. 독자는 그의 소소한 이야기와 내면의 갈등에 대한 고백, 기도와 묵상의 깊은 차원이 진정성 있게 전개될 때 저자의 정체성 찾기가 어느덧 독자 자신의 정체성 찾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자전적 글쓰기는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변형 시켜가는 씨름의 과정으로서 적합한 기독교교육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교육에서 정체성 확장의 장으로서 자전적 글쓰기가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전적 글쓰기는 일인칭 시점의 사적인 이야기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일인칭 자아는 타자 및 세계와 결부된 자아이기애 글쓰기 자체는 개인적인 인지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맥락적인 행위이다. 자전적 글쓰기의 이러한 공공성은 기독교교육의 공동체성과 연결된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독교공동체와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광야생활을 할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잊지 말도록 출애굽 이야기를 반복하라고 명령하였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모세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내용은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로서 오직 모세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전적 이야기이다. 그러나 모세 개인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며 이끌어내시는 공동체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확장된다. 모세 개인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확장된 정체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었다.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떨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의 저자들이 각각 만난 예수님 체험을 자기 고백적 이야기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면 그 공동체의 신념이 탄생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념은 신앙공동체에 의해 유지되고 개혁되고 구현되는 사회적 맥락성을 가지게 되며 신앙공동체의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구성원들의 신념 및 자아 정체성이 된다 (Little, 1983, 32-33). 개인의 자전적 이야기가 결국 구성원들의 신념이 되어 그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본질이 되는 것이다. 자전적 글쓰기의 일인칭 시점의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 공동체에서 나의 예수님 경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전적 글쓰기가 자아정체성이 만나고 씨름하고 확장되게 하는 특징이 성경과 신학적인 자전적 이야기들 속에서도 유사하게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살펴보자.

III. 기독교교육학 저서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

기독교교육학 저서는 기독교교육학자 개인의 특수한 역사성을 토대로 철저한 자아정체성을 반영해주는 글이다. 저자의 사회 문화적, 신앙적, 신학적, 교파적, 교육적 배경 등이 글에 녹아 있다. 기독교교육학 저서의 대부분이 그 특성상 논픽션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글쓰기는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글에서 독자는 저자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삶이나 생각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객관화된 결과 중심적이며 설명적인 언어가 주를 이루고 감정, 상상력, 직관과 같은 인지를 작동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자전적 글쓰기를 통하여 인지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한 글을 기독교교육학의 명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인칭 시점으로 이루어지며 자기 고백적인 글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최근의 저서는 객관적인 논증을 뒷받침하거나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삽입된 자전적 이야기 형식이 주를 이룬다. 중간에 삽입되거나 새로운 장의 첫머리에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배치된다. 자전적 이야기는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 경험하기에 허구의 이야기와는 구별된다. 저자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를 감동과 재미의 요소까지 더할 뿐 아니라 진정성 있게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저자의 논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이점도 준다. 그런 자서전적 기독교교육학 저서들 중에서 본고는 해리스의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무어의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 학자의 저서를 선택한 이유는 세 학자 모두 일인칭 시점으로 책 전체 내용을 구성하며 자전적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히 논리적 언어와 함께 자전적 이야기가 포함된 다양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책을 읽을 때 부르네가 말한 유형적이면서도 이야기적인 사고를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또 다른 이유는 본

고가 논증하려는 자전적 글쓰기와 정체성의 관계가 각각의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세 저자 모두 학문적, 신앙적, 교파 및 신학적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전적 이야기의 묘미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고 각 저서를 분석해볼 것이다.

1. 해리스의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

해리스(Harris, 1998)의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은 예술적 사고에서 나온 이미지와 깊은 통찰을 통해 가르침에 대해 서술한 기독교교육학의 명저이다. 저서의 전체 글쓰기는 대부분 논증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적 문장들 가운데 시인의 이야기, 헬렌 켈러의 자서전 이야기, 현재의 정치 상황 이야기 등을 삽입하여 설명적인 언어와 시적인 언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특히 2장에서 가르침을 명상, 참여, 형태부여, 출현, 해제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자전적 글쓰기를 시도한다. 다음은 “형태부여”라는 단어를 논증하기 위하여 과거의 구체적인 수업을 경험한 이야기이다.

내가 아는 위대한 교사들 중의 한분인 유니언 신학교에서 나의 스승이었던 마리 툴리에게서 한번은 진흙으로 하는 단순한 훈련을 받았다. 우리는 먼저 진흙을 가지고 놀면서 그 진흙의 성질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눈을 가리고 계속 진흙을 다루었다. 우리는 진흙을 명상하였고 참여하였으며 이제 진흙과 상호 교류하며 형태를 부여하는 순간이 되었다...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진흙 덩어리 안에 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형태를 찾아 내야합니다. 그 형태를 찾을 때에는 진흙과 상호 교류를 해야 합니다(Harris, 1998, 67).”

자전적 글쓰기는 나, 교사인 마리 툴리, 동료친구들로 구성된 등장인물, 유니온 신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수업시간인 배경 그리고 진흙 수업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라는 일인칭 시점으로 해리스의 과거 경험으로 들어가 독자들을 과거의 정체성으로 초청하여

만난다. 해리스가 현재 “가르침”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과거의 “가르침” 수업을 받았던 자기의 과거 경험으로 들어간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주제를 가르치는데 적합한 선택이었다.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저자의 정체성은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과거로 끌고 들어가 독자의 정체성을 초청하여 만나게 한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일어난 진정성 있는 수업시간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연이어서 해리스는 “진흙을 다루며 형태를 부여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들과 교류하며 과거의 사건을 거리두기와 객관화를 통해 성찰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진흙 수업 시간 자체를 예술 작품을 대하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저자 자신도 독자들과 같이 거리를 두며, 사건에 대해 놀라고 사건과 대결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진흙 덩어리의 형태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가르침의 형태부여와 동일하다는 새로운 깨달음에 기독교교육학자의 정체성이 독자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해리스는 가르침이란 일반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주제 자체를 묵상하고 기다리며 그 자체가 가진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정적인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독자는 주장이나 논증을 사용하지 않은 자전적인 글쓰기 속에서 해리스의 가르침에 대한 정체성, 기독교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또한 자전적 글을 통해 저자의 학문적 신학적 배경이 유니온의 장로교 신학인 것과 스승 마리 툴리와와의 일화를 통해 가르침에 대해 예술적인 상상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처럼 해리스의 자전적 글쓰기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진정성과 신뢰, 이야기적 요소의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다.

2.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

파머(1998)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교사의 영성을 주제로 오랜 세월 교사로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통찰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머의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많은 경험과 교직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서술해나감으로써 논증이 주는 명료함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파머는 전체적으로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곳마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며 교직 경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교사로서 얻은 생생한 경험이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신뢰와 통찰을 얻도록 한다. 특히, 파머는 “공포의 문화(교육과 단절된 삶)”라는 제목으로 2장을 시작하며 학생과 교사로서 느꼈던 감정을 자전적 글쓰기로 쓰고 있다.

지옥에서 온 학생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보편적 원형이다. 내 경우는 남학생이었다. 그는 눈까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눈을 뜨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었다. 노트나 필기구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화창한 봄날인데도 상의 단추를 꼭꼭 잠그고 있었다. 여차하면 강의실에서 달아날 태세였다 ... 그 당시 나는 교직 생활 25년째였다. 그러나 막상 지옥에서 온 학생과 마주치고 보니, 신참 교사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오로지 그 학생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학생들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 그 학생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 그 학생의 아버지는 실직 노무자에 알코올 중독자였다 ... 그래서 이 학생은 매일 대학에 다녀서 뭐하나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Palmer, 1998, 82).

지옥에서 온 남학생과 나는 등장인물, 어느 화창한 봄날의 강의실은 배경이다. 25년 교직생활을 해온 베테랑 교사인 파머가 신참 교사처럼 지옥에서 온 학생에게만 온 신경을 쓰고 허둥지둥 수업을 망쳤지만 학생의 상황을 알게 된 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완벽한 이야기 형식의 자전적 글쓰기이다. 정체성 만남, 씨름, 확장의 관점에서 파머의 이야기를 분석해보자. 우선, 파머는 자전적 이야기 속에서 교실에서 경험하는 공포라는 공통 감정을 매개로 교사인 독자들의 정체성을 초청한다.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수업 중의 사건으로 독자들을 초청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대

면하게 한다.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펼쳐지는 교실에서의 경험으로 독자들을 초청하여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씨름하는 장을 열어준다. 어느 교실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지옥에서 온 학생을 저자와 독자는 함께 고민하며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마침내 지옥에서 온 학생의 상황을 알게 된 파머와 독자는 교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을 직감하게 된다. 지옥으로부터 온 학생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어느 교실에나 존재하는 불량한 학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소외받는 학생들의 현 상황임을 알게 된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저자와 독자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침내, 파머와 독자는 학생을 타자로 객관화시키지 않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교사의 영성이자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파머의 기독교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단절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허물고 학생의 진정한 상황에 관심하는 인격적인 교사의 정체성으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파머의 자전적 글을 통해, 파머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교사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공포를 다룬 자전적 이야기는 파머의 학문적인 관심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3. 무어의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 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

무어(Moore, 2004, 1-4)는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 에서 “성례전적 행위로서의 가르침”을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생생한 사건들과 삶의 이야기를 기독교교육의 소재로 삼고 있다.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텍스트이고 고난의 경험 속에서 질문을 가질 때마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아이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 질문하는 이야기,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눈 쌓인 산을 헤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 자체가 성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무어의 저서는 일인칭 시점으로 신학적 통찰과 교육이론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가르침의 정의처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까지도 제시하며 기독교교육의 재료로 삼고 있다. 무어의 자전적 이야기는 서문에 쓴 하나의 사건에 잘 표현되어 있다.

과거의 한 특별한 사건이 내가 말하려는 주제를 잘 알려줄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종교간 대화”라는 세미나에 초대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내 동료와 나는 아파서 거의 죽을 직전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왕복 5시간의 거리를 달렸다. 전에도 둘이서 그녀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번은 달랐다. 오랜 세월동안 내 친구는 폐암을 남편과 함께 용감하게 극복하고 있었고 폐 이식수술까지 받았다. 처음에는 이식한 폐에 잘 적응했지만 점차 거부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녀가 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그날 그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 모두는 웃고 울고 기도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며 격려하고 헤어졌다(Moore, 2004, 11).

무어는 등장인물로서 동료, 친구, 자신을, 배경으로 폐암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방문한 사건으로 자전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 무어는 세상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의 주제로 삼으며 서문의 자전적 글쓰기가 아프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체성 만남, 씨름, 확장의 장으로서 무어의 자전적 글쓰기는 죽음을 앞둔 친구를 병문안했던 에피소드로 독자들의 정체성을 초청한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불치병에 걸린 친구가 한 명쯤은 있고 인간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이별의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주며 공감과 진정성으로 독자들의 정체성을 만난다. 저자 또한 그 글을 회상하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 웃고, 울고, 기도한 사건을 대면한

다. 생의 마지막에 달은 친구를 바라보며 유한한 인간으로서 공감하는 가운데 저자와 독자의 정체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씨름을 경험한다. 유한한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웃고, 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마침내, 저자는 한번은 떠나야 할 그 길을 떠나는 친구를 위로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인간 보편의 감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시켜나간다. 무어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 또한 저자의 아픈 경험이 현재의 자아정체성을 안에서 공감되어 확장되어간다. 무어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육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장되어 감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에 무게를 실으며 삶의 이야기들이 가진 성례전성 즉 삶의 이야기 자체가 성례로서의 가르침의 예가 될 수 있다는 학문적인 배경을 자전적 이야기에 녹여 내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교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거룩한 가르침의 통로가 된다는 무어의 과정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다.

4. 기독교교육학 저서들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 연구의 종합

해리스, 파머, 무어의 자전적 글쓰기는 기독교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논증적인 글보다 더욱 감동적이고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각자의 독특한 경험이 저자 자신의 정체성뿐 아니라 독자의 정체성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해리스는 기존의 가르침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며 명상, 참여, 형태 부여, 출현, 해제라는 예술적인 이미지로 가르침을 정의 내린다. 이러한 핵심적인 제안을 진흙수업이라는 과거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독자들을 초청함으로써 공감과 동일시를 불러일으키고 대안적인 가르침의 비전을 직관적으로 제시하였다. 해리스는 가르침 정의에서 “형태부여”를 설명하기 위해 진

흠을 실제로 바라보고 씨름하고 만들어가는 장면을 생생히 묘사해준다. 해리스의 예술적인 수업 경험이 독자의 경험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어떤 설명보다도 더 깊이 있게 독자의 중심을 터치한다. 해리스와 독자는 가르침의 형태부여를 그 어떤 말보다 더 심오하게 이해하게 되고 공동의 이야기를 재창조하게 된다. 파머는 비인격적인 교실에 팽배한 공포의 근원을 자신이 경험한 사건 속에서 독자들과 함께 대면하였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회상하는 가운데 독자를 끌어들여 이런 경험은 자신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시킨다. 이해할 수 없는 학생을 경험해 본 저자와 독자는 이 문제를 대면하고 뒹굴게 된다. 마침내 파머는 지옥에서 온 학생과의 대화 가운데 학생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가르침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 어떤 논증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저자와 독자의 정체성에 파고드는 가르침이었다. 무어는 죽음을 맞이한 친구를 병문안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독자들의 정체성을 초대했다. 성공과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프고 힘든 이야기까지도 저자 자신과 독자의 정체성을 한층 더 변형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룩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희로애락의 모든 삶의 면면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처럼 거룩한 성례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의 정의가 독자에게 심겨진다.

지금까지 기독교교육학의 저서에 나타난 저자들의 자전적 글쓰기가 기독교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드러내고 독자들의 정체성과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자전적 글쓰기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파머(1998)가 말하는 “위험한 주관주의”의 함정에 빠질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해리스, 파머, 무어의 저서들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이분화하지 않고 조율되어 있다. 저자들은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이 편견으로 해석될까봐 제 3자의 목소리를 빌려오기도 하고 설명적 언어로 끝맺기도 한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은 독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많은 설명과

논증과 인용보다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가 살아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동시에 저자의 이야기는 독자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설명의 언어가 독자의 가슴 한복판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씨름하고 변형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이고 실제 이야기 즉, 자전적 이야기의 묘미일 것이다.

IV. 나가는 말

날마다 많은 책과 글이 생산되는 시대, 그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 매일 많은 양의 글을 읽고 또 읽지만 거의 휘발되어 버린다. 마음 안에 오래 머물며 묵상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다잡아주는 글은 드물다. 그 안에 진정성 있는 자아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머(1998)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르친다고 한 것처럼 기독교교육학저서는 기독교교육학자의 자아를 담아낸다. 저자가 누구인가가 숨길 수 없이 글에 나타난다. 타인의 목소리 뒤에 숨고 의지할 때 그 글은 독자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을 잃고 만다. 하지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자 자신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말 걸어올 때 그 이야기는 살아나게 된다. 활자화된 글이 저자와 독자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글은 읽는 이의 마음 안에 오래 머물고 곱씹어져서 오롯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쓰는 이와 읽는 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공감과 신뢰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들은 자전적 이야기 안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만나고, 씨름하고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자전적 글쓰기가 기독교교육학의 저서에 더 많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원석 (2017).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학적 태도 - 벨쉬와 켈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2, 71-106.
- [Koh, W. S. (2017). Understanding postmodernism and religious educational attitud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2, 71-106.]
- 권오상 (2014). 쿠레레(Currere) 방법을 적용한 청소년 자서전 쓰기 수업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Kwon, O. S. (2014). A study on youth autobiography writing classes applying the currere metho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김혜숙 (2009).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1, 341-363.
- [Kim, H. S. (2009). A study on Christian feminist education through autobiographical curriculu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41-363.]
- 양금희 (2010a). **이야기 · 예술 ·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Yang, K. H. (2010a). *Story·arts·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양금희 (2010b). 이야기의 기독교교육적 차원. **기독교교육논총**, 23, 181-211.
- [Yang, K. H. (2010b). A study about story and its religious educational dimens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3, 181-211.]
- 유승현 (2010).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웹기반 활동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Yoo, S. H. (2010). Autobiographical writing education research: Focusing on web-based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guk.]
- 임경순 (2001). **서사교육론**. 서울: 동아시아.

- [Yim, K. S. (2001). *The theory of narrative education*. Seoul: Eastern Asia.]
- 최현섭 · 박태호 · 이정숙 (2000).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본**. 서울: 박이정.
- [Choi, H. S., & Park, T. H., & Lee, J. S. (2000). *Writ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constructivism*. Seoul: Pagijong.]
- Anderson, R. E. (1963). Kierkegaard's theory of communication. *Journal of Speech Monographs XXX, 1*, 1-15.
- Bruner, J. (1985). Learning and teaching the ways of knowing,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84*, 97-115.
- Crites, S. (1971). The Narrative q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1971*, 291-311.
- Fackre, G. (1984). *The Christian story*. Grand Rapids: Eerdmans.
- Giddens, A. (2010).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권기돈 역. 서울: 새물결. (원저 1991 출판)
- [Giddens, A. (2010). *Modernity and self-identity* (Kwon, K. D. Trans.). Seoul: HWP.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Groome, T. H.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ping our story and vision*. SanFrancisco: Harper & Row.
- Harris, M. (2003).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8 출판)
- [Harris, M. (2003). *Teaching & religious imagination* (Kim, D. I. trans.). Seoul: PCK 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Lejeune, P. (1998).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1974 출판)
- [Lejeune, P. (1998). *The rules of autobiography* (Yun, J. trans.). Seoul: Moonj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Little, S. (1983).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3 출판)
- [Little, S. (1983). *To set one's heart* (Sa, M. J. trans.). Seoul: PCK book.

(original book published 1983).]

Moore, M. E. M. (2004).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 Cleveland: The Pilgrim Press.

Nouwen, H. J. M. (2016). **탕자의 귀향**. 최종훈 역. 서울: 포이에마. (원저 1992 출판)

[Nouwen, H. J. M. (2016).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Choi, J. H. trans.). Seoul: Poiema. (original book published 1992).]

Palmer, P. J. (2000).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종인 역.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 (원저 1998 출판)

[Palmer, P. J. (2000). *The courage to teach* (Lee, J. I. trans.). Seoul: Hanmunhwa. (original book published 1998).]

Ricoeur, P. (2004).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김한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1985 출판)

[Ricoeur, P. (2004). *Time and narrative, volume 3* (Kim, H. S. trans.). Seoul: Moonj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Show, S. M. (1999). *Storytelling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Stroup, G. W. (1997).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Recovering the Gospel in the church*. Oregon: Wipf & Stock Publisher.

Tracy, D. (1981). *The analogical imagination*. New York: Crossroad.

ABSTRACT

**The Study of the Identity of Christian Educators
in Autobiographical Writing of Christian Educational
Books: Focusing on the books of Palmer, Harris,
and Moore.**

Eun Joo Kim

Junior Pastor, Shanghai Korean Community Church

This study is a paper which studies the fact that autobiographical writing in Christian educational books is an important channel for studying the identity of Christian educators. The identity of Christian educators is the background and foundation of the study of Christian education theory. It was found through research that the scholar's identity is more evident in autobiographical writing from a first-person perspective experienced by the author than in argumentative writing with objective and cognitiv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writing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autobiographical writing research and self-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biographical writing and Christian education, and discovered autobiographical writing in Christian educational scholars' books. Through the autobiographical writing of Maria Harris' Teaching and Religious Imagination, Parker Palmer's The Courage to Teach, and Elizabeth Moore's Teaching as a Sacrament Act, we studied that the identity of Christian educators can meet, transform, and expand learners' identity as well. Through research, it has been confirmed that autobiographical writing takes the form of a story, but as a story distinct from the story, it becomes a place where the authors' identity and readers' identity can meet, wrestle and expand. Autobiographical writing has a relationship with story and self-identity.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linked to Christian educational

goals that focus o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self-identity. The autobiographical writing in Harris, Palmer, and Moore's writings shows the identity of a teacher, including scholars' theological perspectives and views on education. As the writing of Christian education books so far has become argumentative and objective writing, readers has felt a sense of disparity and disconnection. If autobiographical writing becomes educational books` style, it can invite readers to empathize with who the author is. Christian education will experience more fundamental changes with autobiographical writing.

《 **Key words** 》

autobiographical writing, story, identity, transformation, form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